

한화석유화학, 석유화학 가장 선호

삼성증권, 저평가 심화 대거 상향조정 ... 시장수익률 40% 하회로

삼성증권은 석유화학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저평가 수준이 심화됐다고 종목별 목표주가를 대거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업종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이을수, 이도연 애널리스트는 “석유화학 4사의 영업이익은 원가부담이 늘면서 2005년에 비해 36.0% 감소한 것으로 전망된다”며 “2005년 전반적인 시황 부진으로 화학산업의 연간 주가수익률은 코스피에 비해 28.7% 못미치고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의 단순평균주가 기준으로는 시장수익률을 40% 하회함에 따라 목표주가를 조정한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5만1000원에서 6만원, 호남석유화학은 5만1500원에서 6만1000원, 한화석유화학은 1만5500원에서 1만9000원, LG석유화학은 3만원에서 2만75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삼성증권은 최선호 종목으로는 한화석유화학을 꼽았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1/17>